

노들꿈섬 운영구상(1차)공모

 서울특별시

본 지침은 개정본이 공시될 경우 2015년 6월22일까지만 유효합니다.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노들꿈섬	01
1. 공모개요	06
1.1 공모 명칭	06
1.2 공모의 목적	06
1.3 공모 방식	06
1.4 사용언어	07
1.5 공모 참가자의 자격	07
2. 공모지침	09
2.1 계획범위	09
2.2 기본원칙	09
2.3 노들꿈섬 운영방향	10
2.4 필수고려사항	11
2.5 고려사항	11
2.6 예산	12
3. 공모규정	14
3.1 공모 추진일정	14
3.2 공모공고	14
3.3 등록	15
3.4 질의 응답	15
3.5 제공자료	15
3.6 기획안 제출	15
3.7 기획안 발표	16
3.8 주최자	16
3.9 공모 관리팀	16
3.10 기술위원회	16
3.11 심사위원회	17
3.12 당선자(팀)의 권리·보상 및 의무	17
3.13 저작권 및 출판전시	17
3.14 분쟁	18
4. 제출물 및 작성기준	20
4.1 제출물의 종류	20
4.2 제출물 목차	20
4.3 제출물 작성기준	21
5.부록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노들섬

도시의 섬

그곳에 섬이 있다, 서울 한북판에 전차가 다니던 시절의 이름은 중지도(中之島)였다. 우리 기억 속의 그 섬은 조금씩 모습이 다르다. 강수욕을 즐기던 백사장, 연인들의 한적한 데이트 장소, 국군의 날 행진행렬이 통과해야 하는 곳, 서울불꽃놀이 축제가 열리면 갑자기 발 디딜 틈이 없어지는 그 섬, 지금 그 섬의 이름은 노들섬이다. 백로(鷺)가 노닐던 징검돌(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도시의 섬’은 고립된 초현실의 상투적 표현이다. 노들섬은 그 표현에 꼭 맞게 서울 북판에 있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스쳐 지나가는 섬이다. 도시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석양과 원초적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비일상적인 풍경, 때로는 초현실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노들섬이다.

한강예술섬

노들섬은 사유지였다. 2005년 서울시는 이 섬을 매입하여 문화단지로 조성하려 계획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의 현상공모가 있었다. 오페라극장, 청소년음악당, 미술관 등을 포함한 한강예술섬사업의 구체적 모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 경제논리가 지배하던 시절을 벗어나 이제 우리에게 문화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변화를 증명하는 기념비적 사업이었다.

음악과 미술은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해야 할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음악당도 미술관도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노들섬은 여전히 도시의 섬이다. 시민들의 일상접근이 가능하려면 교통기반시설이 추가되어야 했다. 섬으로 연결되는 교통시설 확보 예산은 참으로 막대한 금액이었다. 한강예술섬사업은 시설투자비로 6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추산되었다. 게다가 접근이 어려운 공공문화시설은 당연히 운영이 어렵다. 운영지속성이 부족한 공공시설은 결국 초기 시설투자비용 외에도 지속적인 운영비 보조를 요구한다.



공공문화시설은 도시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주변을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도시구조를 개편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보상을 확대재생산해서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문화시설은 도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에게도 대학로를 변화시킨 아르코미술관, 북촌을 바꾸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사례가 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숲 속에 혼자 서있는 대형문화시설의 부정적 교훈도 있다. 그러나 섬은 숲보다도 더 먼 곳이었다.

2천억 원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일단 착수는 가능했다. 그러나 2010년 서울시 전체의 예산 부족문제가 대두되면서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조례>가 폐지되고 기금은 서울시 부채 축소 등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한강예술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도 폐지했다. 실질적 사업추진 동력과 근거가 사라지면서 한강예술섬사업은 중단되었다.

현장조사와 설계비 등에 집행된 약 277억 원의 재원 일부는 매몰되었다. 매몰비용 복구를 위해 사업재개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매몰비용이 아니고 추가예산이다. 계속 투입되어야 할 기회비용은 다시 매몰비용이 될 수 있고 다시 이를 살리기 위해 끝없이 운영비 보조가 이어져야 할 수도 있다. 시민의 해안과 동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었다.

2013년 서울연구원은 '노들섬 활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연구'를 수행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문화시설 건립을 반대하지 않았다. '노들섬'의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노들섬 자체는 잠재적 가치가 큰 공간이니 방치하지는 말고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충분한 논의과정을 위해 노들섬 포럼이 구성되고 다양한 시민 의견수렴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의견수렴 과정으로 서울시는 온라인 여론조사, 학생 디자인캠프, 시민 아이디어공모전, 국내외 전문가 아이디어 스케치 전시,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다양하고 가치 있는 의견과 제안들을 정리한 결과 노들섬의 조성방향은 두 가지의 가치로 수렴될 수 있었다. 시민 모두가 언제나 함께 가꾸고 즐기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단계적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장을 축약하면 주제는 시민과 역사로 수렴된다.

시민의 꿈

화산남 한수북(華山南漢水北) 천년승지(千年勝地)
광통교(廣通橋), 운종가(雲鍾街) 건나드러
낙락장송(落落長松) 정정고백(亭亭古柏), 추상오부(秋霜烏府)
위 만고청풍(萬古淸風) 人경(景) 기엇더 ㅎ니 잇고

권근의 상대별곡은 이렇게 시작한다. 조선 개국 초기 한양 북판인 청계천 광통교에서 도시의 천년을 내다보는 꿈과 희망의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다. 서울은 여전히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 꿈꾸고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서울에 담고 그런 사회가 서울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하지만 서울에 현실과 타협과 좌절에 의한 불만의 공간이 혼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초현실의 공간, '도시의 섬'은 다른 공간이다.

지금 서울의 북판인 한강 노들섬은 우리의 꿈을 그려낼 수 있는 공간, 노들꿈섬이 되고자 한다. 차별반던 서자 홍길동이 건립한 울도국(栗島國)이나 가난한 선비 허생이 꿈꾸던 빈 섬(空島)도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피터팬의 네버랜드(Neverland)도 그런 섬이었을 것이다. 이 섬에 여전히 필요한 주제는 시민과 역사다.

1. 시민

사회가 시민이 모여서 이루는 집단이라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그것은 사회체계 혹은 운영체계를 지칭한다.

노들꿈섬은 창조적 제안자의 독창적인 기획 아이디어로 첫 운영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이 섬의 운영체계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시민사회가 어떤 것일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가치관이 부각되어야 한다. 그러나 섬을 완성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다. 어떤 방식으로 시민이 그 사회의 완성에 참여하고 섬의 모습을 갖춰나갈지를 서술하는 정교한 룰과 시나리오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역사

사회와 도시는 위대한 엘리트에 의해 완결되지 않으며 완성되는 순간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 섬에 다음 세대들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그들의 흔적을 퇴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노들꿈섬은 시민의 경험과 기억이 적층되는 곳이어야 한다. 그 기획의 실현에 필요한 공간 및 첫 시설 구상은 적절한 규모로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후대 시민의 행태와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그들의 공간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을 배경에 깔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공모

민주사회는 결론이 담는 가치를 판단하기보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가치를 판단한다. 건강한 사회는 치열한 경쟁과 공정한 판정을 통해 유지되고 발전한다. 그러한 경쟁과 판정의 제도적 장치가 공모전이다. 노들꿈섬의 미래모습도 공모를 통해 선정될 것이다.

노들꿈섬 운영기획안, 공간계획안, 그리고 최초 운영자가 모두 공모를 통해 선정될 것이다. 이 공모는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구조물이 아니라 가장 민주적 과정이라는 기념비를 얻고자 한다. 이 사업은 노들섬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안부터 공모를 통해 결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물론 그 기획안은 우리의 꿈을 투영한 것이되 현실공간에서의 실천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공모전이 기존의 건축현상공모 방식과 다른 점은 섬의 기획과 운영방식에 대한 공모가 선행된다는 점이다. 필요한 시설의 성격과 규모는 그 결과에 의해 제시될 것이다.

이 공모전이 기존의 위탁운영자선정공모방식과 다른 점은 구조물을 먼저 지어놓고 제 3의 운영자를 뽑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기획에 의해 운영방식이 결정되고 그 결과에 맞춰 구조물이 지어질 것이며 그 제안자에게 운영을 맡길 것이다. 선정된 기획안이 구조물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건물이 지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공모전이 기존의 사업자투자공모방식과 다른 점은 서울시 재원으로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조성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익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적정 운영비회수와 공익가치실현의 균형을 잡으며 시민과 역사에 대해 책임의식이 있는 운영자가 선택될 것이다.

공모진행

이 공모는 1차 운영구상공모, 2차 운영계획·시설구상공모 그리고 3차 공간·시설조성공모로 나누어 진행된다.

운영구상(1차)공모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획안을 뽑는데 목적이 있다. 이 단계는 우리가 어떤 사회의 꿈을 그리고 그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섬에서 구현될 수 있을지를 묻는다. 우리 사회가 특정한 직업의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인문, 사회, 환경 등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 그리고 그들의 협력조직에게 열려있다. 우리 시대의 허균이나 박지원, 혹은 홍길동이나 허생의 상상력이 필요한 공모단계다. 다음 단계인 운영계획·시설구상공모에 진출하기 위한 복수의 기획안이 선정될 것이다.

운영계획·시설구상(2차)공모는 운영구상(1차)공모에서 선정된 복수의 기획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장 탁월하고도 실현가능한 안과 이를 운영할 운영자를 선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들섬의 가치를 발굴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현실적으로 작동가능한 조직체계, 재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준공 이후의 서울시 재정투입은 없거나 최소화되어야 하므로 재정적으로 자족적이며 지속가능한 기획과 운영방안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본적인 공간이용 구상방안도 검토,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조직력과 재정관리능력을 갖춘 주체가 선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노들섬의 첫 운영자가 될 것이고 노들섬의 운영전략을 기본으로 공간·시설조성(3차)공모의 지침이 작성될 것이다.

공간·시설조성(3차)공모는 건축, 조경, 도시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행되는 전통적인 현상공모형식이다. 운영계획·시설구상공모에서 당선된 운영전략을 실현하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이용계획이면서 우리가 도시에서 요구하는 경관기대수준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설계안을 선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적 상상력을 공간적 상상력으로 번역해낸 가장 탁월한 계획안이 당선안으로 결정되고 그 설계에 의해 노들섬이 조성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노들섬이 될 것이다.

노들섬공모

이 공모전은 유연하게 변하면서 시대의 흔적과 퇴적을 담을 수 있는 운영전략과 이를 담을 수 있는 공간과 시설조성 설계안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미완의 계획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섬 전체의 기반시설과 필요한 시설이 추가 사업이 없을 경우에도 충분한 완성도를 갖추고 작동할 수 있는 계획안이어야 한다.

노들섬은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과정과 결과, 가치와 형식의 모든 것이 우리 시대가 떠 보이는 야심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거기 세워진 특정한 구조물이나 섬의 일부가 아니라 섬 전체가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후대에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이 공모전의 진정한 심사위원은 다음 세대의 시민들이 될 것이다.

서현 (노들섬 총괄계획가)

1.

공모개요



1. 공모 개요

1.1 공모 명칭

- 노들꿈섬 운영구상(1차)공모

1.2 공모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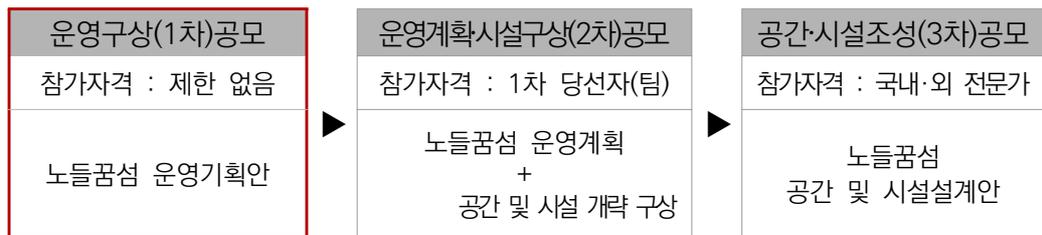
- 운영구상(1차)공모는 시민의 꿈을 재해석한, 창의적인 기획안을 뽑는데 목적이 있다.

- ※ 운영계획·시설구상(2차)공모는 운영구상(1차)공모에서 선정된 복수의 기획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상의 운영 계획안과 이를 운영할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 ※ 공간·시설조성(3차)공모는 운영계획·시설구상(2차)공모에서 당선된 운영계획을 실현하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이용계획이면서 우리가 도시에서 요구하는 경관 기대수준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설계안을 선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3 공모 방식

노들꿈섬 공모는 운영구상(1차)공모, 운영계획·시설구상(2차)공모 그리고 공간·시설조성(3차)공모로 나누어 진행된다.

- 1차 : 노들꿈섬 운영구상공모
노들꿈섬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운영기획안을 제출한다.



※ 본 지침서는 1차 운영구상 공모에 관한 것이며 2차 운영계획·시설구상 공모, 3차 공간·시설조성 공모에 관한 것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이다. 2차, 3차에 관한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2차 : 노들꿈섬 운영구상공모
노들꿈섬의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공모로,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주체(당선자)들이 실현가능성을 담보하는 운영계획서와 노들섬 공간 및 시설에 대한 개략 구상안을 제출한다.
- ※ 3차 : 노들꿈섬 운영계획·시설구상공모
2차 공모 당선작에서 제시한 필요시설과 기반시설, 조경 등의 설계안을 제출한다.

1.4 사용언어

- 공모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1.5 공모 참가자의 자격

- 인문·사회, 문화·예술, 건축·조경·도시 등 모든 분야의 개인 및 단체(국내외 제한 없음)
- 개인 및 단체 간 협업 가능
- ※ 심사위원, 운영위원 혹은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다.

※ 2차 공모 참가자(팀)의 자격

-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주체들(당선자)에게 2차 공모(운영계획·시설구상) 응모 자격이 부여된다.
- 제안하는 내용에 따라 관련법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차 공모 당선자(팀)는 서울시와의 계약 이전에 민간위탁계약이 가능한 주체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고, 노들꿈섬의 조성 및 운영기간 등 전 기간에 걸쳐(2.3 노들꿈섬 운영방향 참고) 참여가 가능하여야 한다.

An aerial photograph of a city, likely Seoul, showing a wide river with several bridges. A large, elongated island in the foreground is covered in greenery and has some buildings. The city skyline with many skyscrapers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A semi-transparent box is overlaid on the left side of the image, containing the text '2. 공모지침'.

2.

공모지침

2. 공모지침

2.1 계획범위

노들섬의 계획범위는 상단부와 공유수면을 포함한 하단부이다.

- 상 단 부 : 고정 구조물 설치와 상시 사용이 가능한 부지 (가용면적 20,700㎡)
 - 하 단 부 : 하천부지로서 침수를 고려하여 가변적이고 비상시적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부지이며 한강의 수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수면 포함
- ※ 관련법 :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입에 관한 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등 참조
- ※ 시설의 운영(민간위탁) 범위는 제안내용 등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 후 결정한다.



(그림1) 계획범위

2.2 기본원칙

- 물리적 시설은 쓰임을 우선 고려한다.
- 최적의 규모로 제안하되 대규모시설을 지양한다.
- 한강과 노들섬의 역사성을 존중한다.
- 노들섬의 생태가치를 증진한다.
- 노들섬이 가진 경관적 가치를 고려한다.
- 주변지역의 맥락을 고려한다.
- 대중교통 및 보행등 친환경 교통체계에 기반한 계획을 수립한다.

2.3 노들꿈섬 운영방향



(그림2) 노들꿈섬 운영기간 예시

■ 기본방향

제안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시민의 꿈을 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구현해야 한다.

■ 조성 및 운영기간

노들꿈섬이 완성되기까지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각 기간을 고려한 운영계획안을 제안해야 한다.

- ① 설계기간 : 기본 및 실시설계
- ② 조성기간 : 옹벽 보수보강, 내부 부지조성, 교통기반시설, 접안시설 등의 기반시설 공사와 제안자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시설물 조성
- ③ 최초운영기간 : 조성공사 완료 후 3년
- ④ 장기운영기간 : 최초 운영 이후 노들꿈섬 운영

※ 운영기간 예시는 제안내용에 따라 협의를 거쳐 전체 일정은 조정·변경이 가능하다.

※ 착공 이전에 제안자의 운영계획안을 사전 검증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제안이 가능하나, 노들섬발 운영기간에는 노들섬의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 2차 당선자는 3차 공모 지침 작성과 설계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 시민 참여 전략

제안자는 ①설계기간, ②조성기간, ③최초운영기간(3년), ④장기운영기간을 고려해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해야 한다.

■ 지속적 운영 및 재정전략

노들꿈섬 운영은 공익가치를 존중하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및 재정전략을 제안해야 한다.

※ 노들꿈섬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총당을 위해 시 재정, 운영수익, 기부금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단, 안전유지 및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서울시 재원투입이 가능하다.

2.4 필수고려사항

- 노들섬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
공모 제안자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기획 시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구상한다.
 - ① 부지조성
노들섬 지형을 고려한 부지정지 및 외부공간 조경(포장 및 동선 등)이 조성된다.
 - ② 접안시설
노들섬 남서측에 수상택시 등 수상교통의 선착이 가능한 규모로 접안시설이 조성된다.
※ 관련 내용은 부록 참조
 - ③ 옹벽보수
불량 옹벽구간에 대해서는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할 것이다. 단, 옹벽의 경계는 조정되지 않는다.
※ 관련 내용은 부록 참조
- 콘텐츠 및 프로그램 구현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계획
제안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이 조성된다.
- 노들섬 동·서측 연결계획
노들섬은 현재 동측과 서측이 단절되어 있다. 따라서 섬 전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지상·지하, 공중의 입체적 연결이 조성된다.

2.5 고려사항

- 교통기반시설 계획
서울시는 향후 노들섬 이용 수요 증가를 대비해 교통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 ① 중앙버스 전용차로(기존 가로변 정류장은 존치) 설치
 - ② 횡단보도 설치※ 교통기반시설은 2017년 8월 완공 예정이며, 여건에 따라 일정과 계획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세부 계획내용은 부록 참조
- 비오톱
비오톱 1등급지는 보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활용해야할 경우 향후 설계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야한다.
※ 관련 현황은 부록 참조
- 기존시설물
현재 노들섬에는 헬리포트, 군경합동검문소, 이원등 상사 동상이 위치하고 있다. 제안자의 내용에 따라 향후 설계 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다.
※ 관련 현황은 부록 참조

■ 노들텃밭

현재 노들섬 서측부지 일부는 노들텃밭으로 임시 활용되고 있으며, 제안자는 이를 고려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다.

■ 주변연계

노들섬과 인접한 이촌, 노량진, 여의도 지역 등 주변 지역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 관련 현황은 부록 참조

2.6 예산

노들꿈섬을 위한 서울시 예산은 최대 491억 원이다. 추정사업비는 456억 원이며, 건설관리비 등 기타금액은 약 35억 원이다. 추정사업비 중 기반시설(부지조성, 옹벽보수, 유람선 선착장, 동·서 측 연결계획)의 추정공사비는 대략 213억 원(설계비 포함)이다. 따라서 제안자의 기획 및 운영방안에 따른 시설조성은 최대 약 243억 원(설계비 포함)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예산의 세부 내역은 부록 참조

3.

공모규정

3. 공모규정

3.1 공모 추진일정

구 분		추진 일정	유의 사항
1차	공고(1차)	2015년 6월 10일	- 기자설명회 : 오전10시
	참가등록	2015년 6월 10일 ~ 2015년 7월 31일	- 공모 홈페이지 접수
	질의접수	2015년 6월 10일~22일	- 공모 홈페이지에 질의요청
	질의회신	2015년 6월 29일	- 공모 홈페이지에 질의회신
	제출마감	2015년 8월 14일	- 현장 및 우편접수
	심 사	2015년 8월 24일~27일	
	결과발표	2015년 8월 28일	- 공모 홈페이지 공지
2차	공고(2차)	2015년 9월 중	
	질의접수	2015년 9월 말	
	질의회신	2015년 10월 초	
	제출마감	2015년 11월 초	
	심 사	2015년 11월 중	
	당선작 발표	2015년 11월 말	
3차	공고(3차)	2016년 1월 말	
	질의접수	2016년 2월 초	
	질의회신	2016년 2월 초	
	제출마감	2016년 4월 중	
	심 사	2016년 4월 말	
	당선작 발표	2016년 5월 초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3.2 공모공고

(1) 공모공고

- 일 시 : 2015년 6월 10일
- 게 재 : 일간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

(2) 기자설명회

- 일 시 : 2015년 6월 10일 오전 10시-10시 30분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2층 브리핑룸

3.3 등록

참가자는 [홈페이지\(www.nodeul.org\)](http://www.nodeul.org)에서 '참가등록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등록한다.

- 등록기간 : 2015년 6월 10일 ~ 7월 31일, 18:00시(GMT+09)까지
- 등 록 : 공모 홈페이지 등록
- 유의사항 : 팀원 변경은 가능하나 대표자 변경은 불가

3.4 질의응답

(1) 질의응답 기간 및 방법

- 질의기간 : 2015년 6월 10일 ~ 22일, 18:00시(GMT+09)까지
- 질의방법 : 질의기간 내 공모 홈페이지에서 질의
 - ① 인터넷 홈페이지
 - 공모 홈페이지→질의응답에 작성 제출
 - ② 유의사항
 - 공모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질의가능하며 질의자(응모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및 사무실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질의회신

- 일자 : 2015년 6월 29일
- 방법 :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공모 홈페이지→질의응답)
- 질의서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공모지침서에 우선한 효력을 갖는다.

3.5 제공자료

본 공모를 위해 필요한 자료(공모지침서 등)은 노들섬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3.6 기획안 제출

제출은 참가 등록자만 가능하며 각 참가자는 1개의 기획안만 제출할 수 있다. 우편제출 시 모든 제출물은 하나로 포장되어 도착해야 하며 포장의 문제에 따른 분실이나 손상에 대해 주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참가자는 홈페이지에서 제출물이 안전하게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이후에는 제출물을 돌려주지 않는다.

(1) 기간

- ① 현장접수
 - 기간 : 2015년 8월 14일 10:00(GMT+09) ~ 18:00시(GMT+09)까지만 인정한다.
 - 마감시간 안에 접수 장소에 도착하도록 한다.
- ② 우편접수 (국제특송포함)
 - 마감 : 2015년 8월 14일 18:00시(GMT+09)
 - 우편제출물의 경우 마감까지의 소인만 인정한다.
 - 현장접수 시작 이전에 도착한 제출물의 경우, 공모전 운영팀이 보관 후 현장접수 시작 과 동시에 접수처리 한다.

(2) 접수장소

- 주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1층
- 전화 : 02-2133-8362

3.7 기획안 발표

-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응모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발표를 요구할 수 있다.
- 발표 여부는 심사 1일 전에 개별 통지한다.
- 발표 자료는 기 제출된 기획안만 가능하며 일체의 보조 자료는 사용할 수 없다.

- ※ 2차 운영계획·시설구상공모안 발표
 - 응모자 전원 발표를 요구할 수 있다.
 - * 발표 자료 등에 대하여는 2차 공모지침에서 별도 제시

3.8 주최자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1층
- 홈페이지 : www.seoul.go.kr
- 연 락 처 : 사무실 : 02)2133-8362, FAX : 02)2133-0737, E-mail : ileos@seoul.go.kr
담당자 : 강전남

3.9 공모 관리팀

전문위원(서현, 노들섬 총괄계획가) + 한국도시설계학회

- 주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신관 708호
- 연 락 처 : 사무실 : 02)538-4596, FAX : 02)538-6170, E-mail : udik@udik.or.kr

※ 공모관리팀은 공모의 일정과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전문위원은 공모 참가자의 등록, 질의응답, 1차~3차 제출물 접수 등을 감독하며, 전 과정을 보조한다.

3.10 기술위원회

기술위원회는 공모 취지에 대한 이해, 운영 및 재정계획, 공간구상 등에 대한 기획안의 실효성을 사전 검증하고 공모규정 및 지침, 관련 법규에 기초한 위반사항을 판정해 보고서로 정리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3.11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1차 심사위원 추후 홈페이지(www.nodeul.org)를 통해 공개한다.

3.12 당선자(팀)의 권리·보상 및 의무

- 1 공모의 당선자(팀)는 노들꿈섬 운영계획·시설구상(2차)공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2차 공모의 당선자(팀)는 노들꿈섬 운영권에 대한 우선협상권이 부여된다.

- ※ 노들꿈섬 운영계획·시설구상(2차)공모 시상내용
- 1등 (1팀) : 운영권에 대한 우선협상권 + 5천만원
 - 2등 (1팀) : 5천만원
 - 3등 (1팀) : 3천만원
 - 입선 (수상자를 제외한 2차공모 참가팀) : 1천만원

- 운영권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한다
- 당선자를 대상으로 수의협약을 통해 운영권을 위탁하나 공모당선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각각의 독립성을 가진 별개의 절차이므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이 미비된 경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또는 시의회 동의 과정에서 부적정 통보를 받아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서울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위탁기간은 최초 3년으로 하며, 평가를 통해 재계약 가능하나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차 공모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연속 3회이상 재계약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전환 검토
- 수익금의 징수·처리, 사업비 지급, 제3자 사용수익,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3.13 저작권 및 출판전시

- 제출 작품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고, 제출 작품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주최자에게 있다.
- 주최자는 본 공모와 관련한 출판 및 전시 등에 제출된 모든 작품을 별도의 보상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주최자는 당선자(팀)와 협의를 거쳐 당선작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팀)는 주최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3.14 분쟁

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소재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고 사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 두 개 이상의 작품을 제출한 경우
 - 공모전 규정과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작품의 익명성을 무시한 경우
 - 최종 심사 결과 발표 이전에 작품을 공개한 경우 (온라인 포함)
 - 참가자격 규정한 바에 근거해 자격이 없는 자가 출품했을 경우

4.

제출물 및
작성기준



4. 제출물 및 작성기준

4.1 제출물의 종류

- 노들꿈섬 조성 및 운영기획안 : 30부, A4 20매 이내
- CD (상기 모든 자료 포함)
- 공모참여에 필요한 서류
 - ① 응모 신청서(서식1)
 - ② 대표자 선임계(서식2)
 - ③ 서약서(서식3)
 - ④ 공모 참여자명단(서식4)

4.2 제출물 목차

- 기획안은 A4 20매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단면인쇄)로 작성하며 30부를 제출한다.
- 기획안은 아래에서 제시한 목차 및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가능하다.

기획안 목차	세 부 내 용
가) 노들꿈섬 운영 기본방향	- 내가 꿈꾸는 서울의 미래에 노들꿈섬의 역할과 기능 - 노들꿈섬 운영 주제 - 노들꿈섬 비전과 목표, 기대효과
나) 노들꿈섬 운영기획	- 노들꿈섬 운영 프로세스 - 콘텐츠 및 프로그램 - 관리·유지 방안 - 단계별 시민참여전략
다) 운영주체의 조직구성	- 운영주체의 성격 구상 - 운영주체 구성 및 체계
라) 재정전략	- 운영재원의 구성 - 개략 재정계획(설계 및 조성기간, 최초 운영기간, 장기 운영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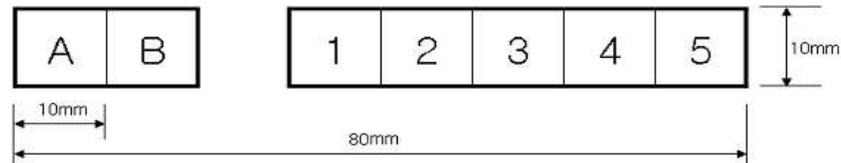
(표1) 1차 공모 제출물 목차

※ 2차 공모 제출물 목차(안)

기획안 목차	세 부 내 용
가) 운영계획	① 세부운영계획 - 콘텐츠 및 프로그램 계획 - 단계별 운영수행계획 - 단계별 재정계획 - 단계별 수입 및 지출관리 계획 ② 관리운영계획 - 노들섬 운영조직 구성관리계획 - 단계별 시설관리계획 및 마케팅 계획
나) 공간 및 시설 개략 구상	- 제안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구현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에 대한 대략적인 구상안

4.3 제출물 작성기준

- 모든 제출도서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며 컬러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해야 한다.
- 모든 제출물에는 응모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으며, 익명성 보장을 위해 모든 제출물 표지에는 고유번호(PIN)를 기입한다.
- 응모자는 제출물을 백색종이로 포장원 밀봉하여 접수번호를 표기하고 고유번호(PIN)가 기입된 A4용지를 앞면에 부착한다.
- 고유번호는 작품제출자가 임의로 알파벳 두자와 아라비아 숫자 다섯자로 구성한다.
- 고유번호는 아래와 같이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표기한다.
- 고유번호에는 다른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고유번호 양식 예시]

[식1]

응 모 신 청 서				
※ 접수번호		(공란)		
대표	대표자명		업 체 명	(필요시)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주 소			
<p>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노들꿈섬 운영구상(1차)공모에 있어서 공고 및 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15 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300px;">신청인 : (인) (대표자)</p> <p style="margin-left: 300px; font-size: 1.2em;">서울특별시장 귀하</p>				

----- 절 취 선 -----

노들꿈섬 운영구상(1차)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공란)				접수인
대표자명		업체명	(필요시)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주소				

[식2]

대 표 자 선 임 계

공 모 명 :

대표자선임 :

① 소속 :

② 성명 : (생년월일 :)

상기인을 공동 대표자 전원의 합의하에 대표자로 선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위 공모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5년 월 일

공동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 응모팀에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만 제출하며, 이 경우 모든 공동대표가 별도로 제출함

5.

부록

1. 사업개요
2. 노들섬 현황
3. 기초공사 계획
4. 주변지역 현황
5. 노들섬 역사

1. 사업개요

1.1 사업명 : 노들섬 문화명소화 조성사업

1.2 사업의 배경

- '12년 한강예술섬 조성사업 보류 이후 임시 텃밭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보다 공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따라서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조사(서울연구원,2013)를 진행하였고, 노들섬은 잠재적 가치가 크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노들섬 포럼, 시민·전문가의 참여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 그간의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새로운 공간에 대한 요구,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의 전환을 뜻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되었다.

1.3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1층
- 연락처 : 02)2133-8362, FAX 02)2133-0737, E-mail ileos@seoul.go.kr, 강전남

1.4 예산 : 491억원 (추정사업비 : 최대 456억 원)

- 노들섬 조성을 위한 총 예산은 491억원이며,
- 이중 추정사업비는 최대 456억원(건설사업관리비, 부대비 등 제외)이다. 여기에는 필수 기반시설의 추정사업비 약 213억원도 포함된다. 추정 사업비는 기본계획에 의한 추정금액이므로 계획안 변경 시 세부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 제안자의 기획 및 운영방안에 따른 시설조성은 약 243억원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자의 재정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모금 등을 통해서 추가 시설을 계획할 수 있다.

구 분	시 설 조 성 비			
	필수 기반시설		제안시설*	
	기본·실시 설계비	공사비	기본·실시 설계비	공사비
설계 및 공사비	9	204	0~12	0~231
합 계	213		최대 243	
사 업 비	최대 456			

(표2) 사업비(단위 : 억원)

*제안된 계획안에 따라 조정 가능

- 필수 기반시설은 부지조성, 옹벽보수·보강, 접안시설, 동·서측 연결계획을 포함하며 세부 추정 공사비는 다음 표와 같다.

시 설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필수 기반 시설	부지조성	토목, 현황측량, 1단계 외 조경	62
	접안시설	실단가 적용	18
	옹벽 보수보강	한강예술섬 특별점검 결과 기준	37
	동·서측 연결계획	폭 5m, 한강대교 상부 특수교량	87
합 계			204

(표3)필수 기반시설 추정 공사비(단위 : 억원)

1.5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12개월 (공휴일 포함)

- 공사발주 예정시기 : 2017년 2월
- 공사예정기간 : 2017.04~2018.03 (12개월)

2. 노들섬 현황

2.1 대상지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6, 146일대 (노들섬)
- 면 적 : 119,854.5㎡ (상단부: 60,818.4㎡, 하단부: 59,036.1㎡)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높이: 12층 이하)
- 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 특이사항 : 상단부, 하단부로 구분 (2종일반주거지역 및 문화시설은 상단부만 해당)

2.2 광역적 공간현황

노들섬 북단은 용산지역으로 이촌역 일대에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글박물관, 용산 가족공원, 그리고 조성 예정인 용산공원이 위치한다. 노들섬 남단으로는 동작구와 인접하고 있으며 노량진 및 여의도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그림3) 노들섬 주변 광역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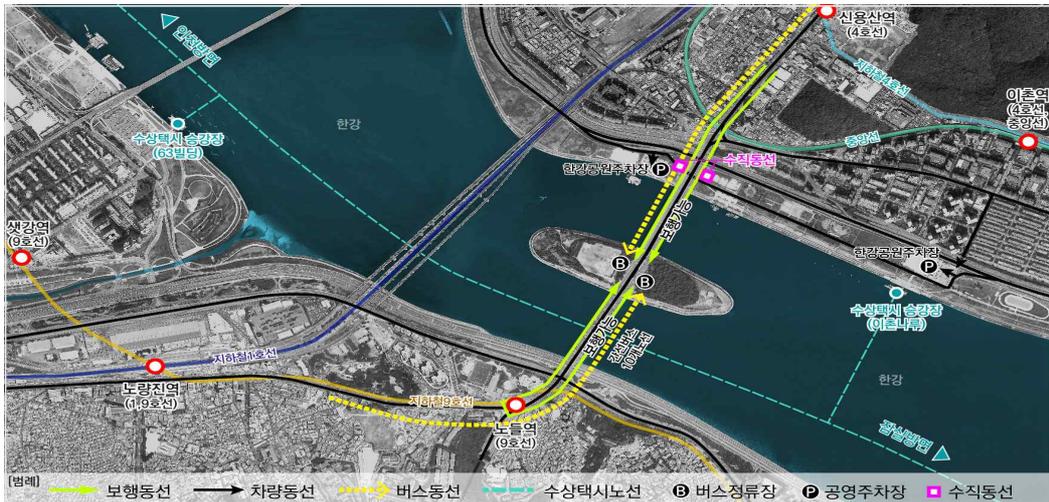
2.3 교통현황

(1) 차량접근체계

현재 노들섬에는 주차시설이 부재하여 인근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의 주차장을 이용한다. 주차 후 노들섬까지는 도보 10~20분이 소요된다.

(2) 보행접근체계

-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한강대교를 통한 보행접근이 가능하다. 보행편의를 위해 한강대교 상부에는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북단에는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한강 공원에서의 보행 접근이 가능하다.
- 버스의 경우 노들섬을 통과하는 한강대교 변으로 양방향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간선버스 13개 노선과 지선버스 1개 노선이 운영된다.
- 지하철의 경우 남단에 위치한 9호선 노들역이 가장 인접한 지하철역으로, 노들섬까지는 도보로 약 10~20분이 소요된다.



(그림4) 교통현황

2.4 식생현황

- 서울시 식생분포도에 따르면 동측 구릉지와 서측 하단부 산림을 제외한 대상지의 대부분은 나지, 시가화지역, 호안블럭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 조사에 따르면 동측 구릉지는 아까시 나무 식재림이며, 서측 하단부는 버드나무 군락지와 초지로 구성된다.
- 기존 식생은 대부분이 식재림으로 보존적 가치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현장은 임상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림5) 서울시 현존식생도(2010)

2.5 비오톱현황

- 2010년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노들섬의 동측의 구릉지 대부분과, 서측의 하단부 습지 지역은 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으로 지정되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1에 의하면 도시 생태 현황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지이면서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지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보존해야 한다.
- 프로그램에 따라 공간 활용이 필요한 경우는 향후 설계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그림6) 서울시 비오톱 현황(2010)

2.6 기존시설

- 현재 노들섬에는 헬리포트, 군경합동검문소, 이원등 상사 동상이 위치하고 있다.
- 제안자의 내용에 따라 향후 설계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설물의 이동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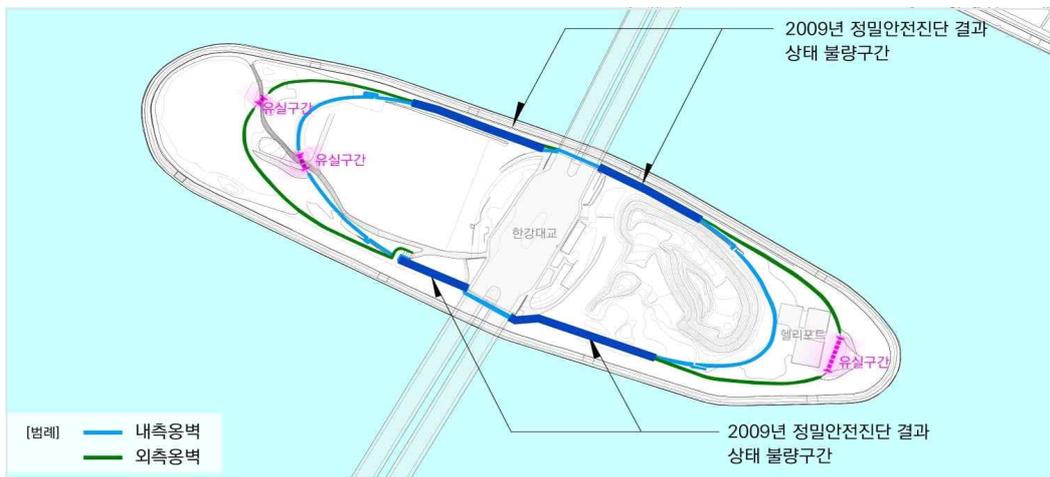


(그림7) 노들섬 내 주요시설물

3. 기반시설 공사계획

3.1 옹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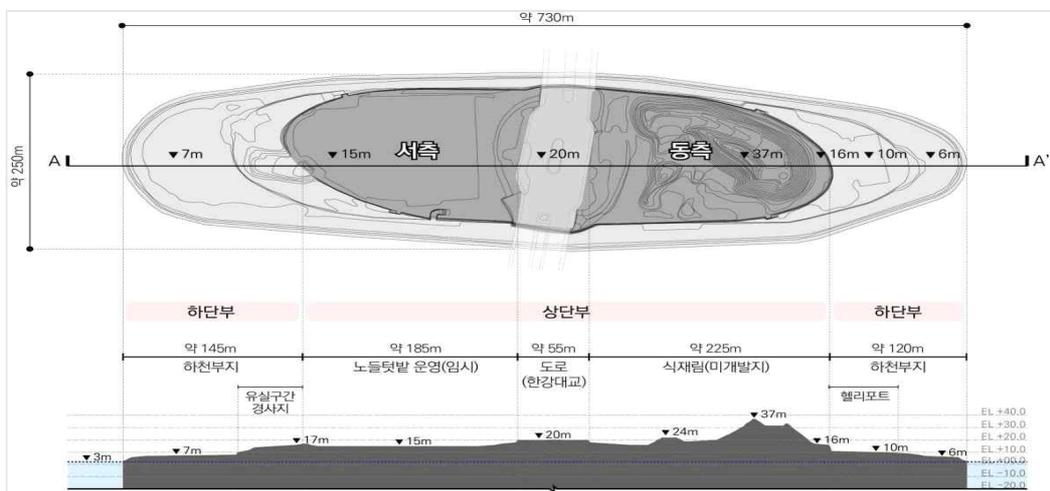
- 섬 상단부는 높이 약 5.7~9.4m, 길이 1,066.m의 내측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서 양단은 높이 약 2.5m, 길이 707m의 외측 옹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측 옹벽의 일부 구간은 유실되어 이동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동측 하단부 외측옹벽도 헬리포트 시설 진입로로 인해 일부가 유실되어 있다. 노들꿈섬 공사 시 불량 옹벽구간에 대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본 사업 시 제안된 계획 내용에 따라 옹벽의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하며, 계획 시 옹벽의 경계 변경은 불가하다.



(그림8) 노들섬 옹벽 현황

3.2 부지조성

- 섬의 상단부 동측은 구릉지, 서측 하단부는 습지지역이다.
- 이러한 노들섬의 지형을 고려하여 콘텐츠 및 운영프로그램, 공간구상, 시설배치, 동선 등에 대해 구상한다.



(그림9) 노들섬 지형 현황

3.3 접안시설

- 노들섬은 서울의 중심, 한강의 중심에 위치해 있지만 주변과는 단절된 섬으로 노들섬을 보다 쉽게 찾아가고 주변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접안시설을 계획한다.
- 접안시설은 수상택시 등의 선착이 가능한 규모 이어야 하며, 강 수심과 수상교통 노선을 고려하여 섬의 남서측에 계획해야 한다.

3.4 교통기반시설 계획

- 서울시는 한강대교로 인해 단절된 노들섬 동·서측을 연결하고, 향후 노들섬 이용 수요 증가를 대비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2017년 8월 완공 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서울시는 ①한강대교 편방향(도심방향)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안전을 위해 섬의 동·서측을 연결하는 ②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 위와는 별개로 제안자는 노들섬 동·서측을 연결하는 지상·지하·공중의 입체적인 연결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그림10) 버스중앙차로 및 횡단보도 계획

4. 주변지역 현황

4.1 주변지역 역사문화자원

- 용양봉저정 : 조선시대 정조(재위 1776~1800)가 그의 부친인 사도세자가 묻힌 수원 화산의 현릉원을 찾을 때 잠시 쉬던 정자로, 한강 도강을 위해 배다리를 설치하는 동안 이용하였다고 전해진다.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어 있다.
- 사육신역사공원 : 한강 인도교와 노량진역 중간의 높은 언덕에 위치한 역사공원이다. 조선시대 단종을 내쫓고 왕위를 빼앗은 세조에 항거하다 처형된 일곱 충신 절사의 묘역이다. 총 면적 49,401㎡에 여러 종류의 조경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휴식을 위해 근린공원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있다.

4.2 주변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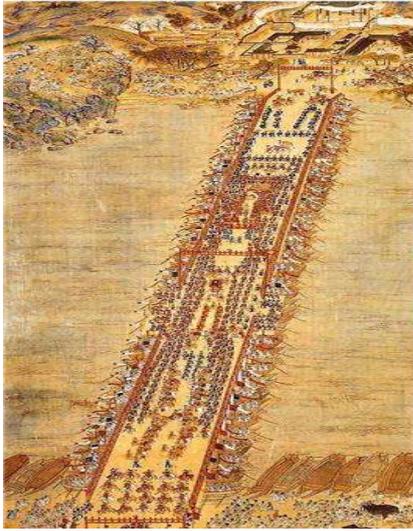
- 한강 중심에 위치한 노들섬 주변지역에는 공원과 주요 시설 등이 다수 입지하고 있다.
 - 공원 : 이촌한강공원(용산구), 용봉근린공원, 노들나루공원, 사육신역사공원
 - 시설 : 노량진 수산시장, 복합역사, 자재적치장
- 현재 한강 내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 등 관련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11) 주변지역 거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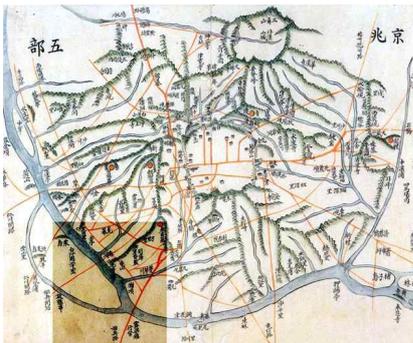
5. 노들섬 역사

▶ 20세기 이전의 노들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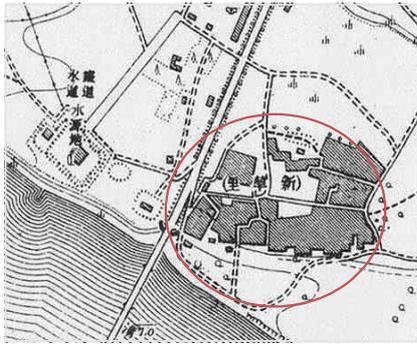
18C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화성으로 행차 시
배다리를 놓아 도강하던 곳

1795년 '정조대왕 능행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배를 일렬로 세워 소나무판자를 깔고 행차하던 지점이다. 정조대왕이 한강을 건넌 후 쉬어갔던 '노량행궁'의 모습은 거의 사라졌지만, 현재 '옹이 뛰놀고 붕이 높이 나른다'는 뜻의 '용양봉저정'이라는 정자는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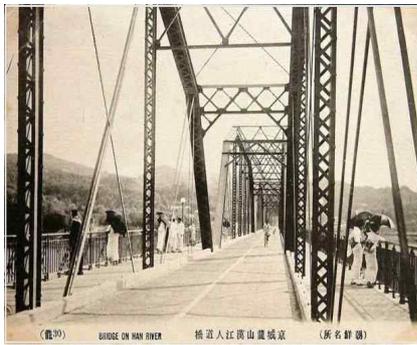
19C 김정호의 경조오부도(1861)에 '사촌'이라 명기된
곳이 지금의 노들섬

▶ 한강개발계획 이전의 노들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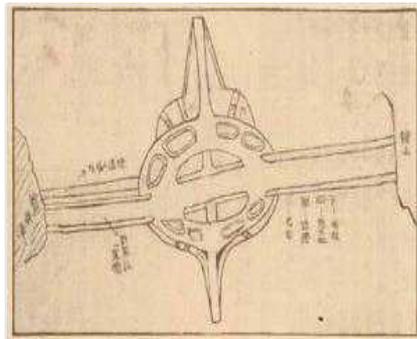
1912 마을 '신초리'

과거 1912년 지도를 통해 마을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추정하고 있다. 마을의 이름은 '신초리' 라고 불렸으며, 조선시대에는 도성에서 한강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살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917 한강 인도교

1917년 10월, 조선총독부가 한강위에 건설한 최초의 인도교이다. 당시 한강인도교를 건설하면서 모래언덕의 흙을 타원형으로 돋우어 다리를 받치고 이를 중지도(中之島)라고 명명하였다.



1936 중지도(中之島) 소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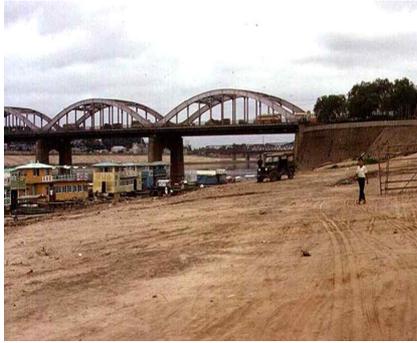
타원형으로 돋우어 놓은 곳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용산에서 중지도까지 전차를 연장하였다. 중지도 주변은 당시의 연인들의 단골 데이트 코스이기도 하였다.



50년대 서울의 피서지

1950년대와 6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섬 동쪽의 고운 모래밭을 '한강백사장'이라 부르며 여름엔 피서지로, 겨울엔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며 즐겼다고 한다. 또한, 매년 국군의 날에는 이곳에서 에어쇼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전해진다.

▶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의 노들섬



1968 백사장이 사라지고 현재의 이촌동 형성

한강제방도로(현 강변북로)건설을 위해 경원선 철길을 따라 놓인 기존 독의 바깥쪽에 새 독을 쌓고, 두 독 사이를 한강 백사장에서 퍼 온 모래로 메웠다. 따라서 백사장이 거의 사라지고 현재의 이촌동이 형성되었다.



1973 섬 매립공사

섬 매립공사를 통해 1만평이 채 되지 않았던 노들섬이 4만5천여 평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확장매립공사를 위해 백사장에 남아있던 모래를 사용하여 그 자리로 강물이 흘러가면서 지금의 노들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다.

1973 진흥기업으로 소유권 이전



1982 호안정비사업

일환으로 실시한 저수로 정비 사업으로 인해 주변의 모래밭이 자취를 감추게 되고 한강물로 둘러싸였다. 이후, 노들섬 면적이 12만㎡로 확정되고 섬 둘레엔 시멘트 둔치가 생겨났다.

1989 (주)건영으로 소유권 이전



1995 노들섬

정부에서 추진한 '일본식 지명 개선사업'에 따라 중지도를 '노들섬'이라고 개명하였다. 예로부터 용산의 맞은편을 노들(떠는 노들)이라 하였고, 앞 한강을 노들강이라 부르는데 기인하다. 일설에 의하면 '노들(또는 노들)'의 사전적 풀이는 백로(白鷺)가 노닐던 징검돌'이란 뜻으로 조선 태종 14년(1414년) 이곳에서 나루(津)를 만들어 노들나루란 이름이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 한강예술섬 계획

2005 노들섬 문화단지 조성계획 결정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



2006 제1회 노들섬 예술센터 지명초청 설계경기 공모
※1등 장누벨



2008 제2회 노들섬 예술센터 지명초청 설계경기 공모
※1등 박승홍

2009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설계용역 시행



2012 한강예술섬 조성사업 보류, 텃밭으로 임시활용
※현실성있는 재정 확보방안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시
까지 사업을 장기 보류

▶ 노들섬 활용에 대한 재논의

2013 전문가 의견 조사 연구 시행



2013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 정립을 위한
노들섬 포럼 운영

2014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시행

※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노들섬 공모 공식 홈페이지 및 <http://citybuild.seoul.go.kr/enodeulseom> 참조

※ 그림 출처 : e-노들섬(<http://citybuild.seoul.go.kr/enodeulseom>)